

실존주의에 빠져들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6

김병익 | 문학평론가

“대학 2학년 때 읽은, 아니 서문만 보고 더 이상 보기를 스스로 마다한 책이 칼 뢰비트의 《역사의 의미》였다. 히브리어와 헬라 이후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관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서술체계가 근대에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책의 서문에서 나는 ‘종말론’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불현듯 다가와 내 눈을 띄우고 머릿속을 관통했다. 그것을 발견하던 날 밤, 나의 의식은 문득 무한확대되고 세계는 홀연히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문득 황동규·서승해와 함께 한 동해안 여행이 유쾌하게 회상된다. 2학년 여름방학에 우리는 약속을 하고 강릉에서 만났고 양양의 낙산사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강릉으로, 삼척으로 내려와 동규는 영월 쪽으로 혼자 빠지고 나와 승해는 내쳐 버스로 가다 내리다 하며 남행해 경주 불국사에서 며칠 묵었고 거기서 석굴암이며 시내 등을 걸어 다니며 구경한 후 부산에서 헤어졌다. 우리는 10여일간의 이 여행중 자주 절이나 포교당에서 공짜로 묵었는데, 미당 선생과 환속하기 전의 일초 고은의 편지 덕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받은 무전으로 한 세 젊은이의 여행은 황동규의 에세이집 《나의 시의 빛과 그늘》(중앙일보사)에 나의 기억과 약간의 차이를 가진 대로 술회되고 있는데, 이 여행중 우리는 ‘피르소의 밀짚모자’와 ‘쇼팽의 구두’를 회자하곤 했다.

즐겁고 유쾌했던 여름여행

우리는 너무 뜨거운 여름햇빛을 가리기 위해 밀짚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승해였던지가 “피르소에게 밀짚모자가 있었다라면 아랍인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서 그 재치에 깔깔대며 웃었고 걸핏하면 그 밀짚모자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동규는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 불편해 했는데, 쇼팽이 새 구두를 신고도 불평하는 것을 보

고 친구가 핀잔을 주자 쇼팽이 “마누라와 신발은 그걸 신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법”이라고 대답했다고 동규 스스로가 변명한 후 우리는 걸핏하면 쇼팽의 구두로 투정을 하곤 했다. 또 그때 동규가 문리대에 아무 전공도 하지 않는 ‘자유학과’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는데, 후에 황순원 선생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 바로 ‘자유학과’ 운운하는 대목이 들어 있어 황선생님이 아들의 재담을 들어줬던 것이 아닌가 혼자서 짐작해본 적이 있다.

어떻든 나는 같은 과 친구보다는 황동규와 마종기 등과 더 많이 어울렸고 최현동과 명동을 들락거리며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이름만 아는 문인들을 다방에서 멀쩡이 떨어져 구경했다. 그러면서 전공 책보다는 문학 책을 더 많이 봤고 소설과 시 이야기를 주로 듣고 또 읽었다. 다행히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던 1950년대 말경부터 많은 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정음사와 을유문화사의 《세계문학전집》,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 신구문화사의 10권짜리 《전후세계문제작품집》이 서점의 서가를 채우기 시작했고 학생들이라면 신양사·양문사 등의 문고판을 으레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전쟁의 혼란이 진정되고

학계와 문화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돼가면서 신문은 신춘문예를 다시 시작하고 잡지 간행도 활발해지면서 주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출판이 적극적인 활기를 띠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이때는 지적,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다른 것들이 없었기에 책이 주는 영향은 압도적이었다. 1960년대 문단에 데뷔해 오늘의 한국문학에 중견층을 이루게 되는 내 또래의 이른바 4·19 세대의 술한 작가·시인·비평가들은 바로 이런 문화적 정황 속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국내의 작품으로 내면을 깨우치며 빈곤과 혼란 속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창작 열망에 자신의 생애를 건 사람들이었다.

교회와 결별하다

나는 문학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내 독서의 대부분은 소설들이었지만, 그러나 문학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다. 문학 강의는 한 강좌도 듣지 않았고 비평집은 더러 봤지만 이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때 내가 문학에 대해 가진 관심은 문학 자체가 아니라 문학 속에 젖어든 실존주의적 주제였다. 인문학 부문 중 내가 유일하게 들은 것이 조가경 교수의 실존주의 강좌였고, 그 시험에서 A를 받을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한 책이나 글은 열심히 들춰봤다. 내가 이랬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작품을 보든 그것의 문학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 존재의 고통과 선택의 외로움, 무한 자유의 삼엄함 같은 실존주의적 감수성에만 빨려들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때 내 앞에 늘어진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거의 모두는 이런 주제로만 내게 접근해왔고 그런 관점으로만 읽혔다.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시절에 본 잡지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감성과 내면으로 깊숙이 내 안을 파고 든 것은 대학 시절이었고 그것을 재촉한 것이 기독교와의 결별이었을 것이다. 서

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종로 6가에 있는 복음교회에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연대 신과대학 교수인 지동식 박사였다. 체구가 자그마하고 겸손하지만 눈빛이 맑고 내면의 깊이는 한없이 깊어보이는 지목사님은 당시 '한국의 바르트'로 불릴 정도로 칼 바르트 전문가였고 니체며 키르케고르를 곧잘 인용하는 그분의 설교는 매우 지적이고 진지하며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속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싹트기 시작한 회의가 점차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나마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돼버렸으며 기독교적 덕성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있었지만 인격신의 역사 참여라는 점은 납득할 수 없었다. 소년시절에 낭만적인 범신론적 대상으로 받아들였던 기독교가 청년기의 내게 더 이상 버티질 수 없었던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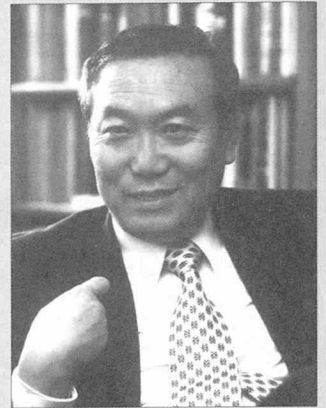
평일에는 이런 종교적 번민 속에서 교회를 버리겠다고 작심하지만 정작 주일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성경》을 들고 동승동 하숙집에서 천천히 종로 6가로 걸어가 예배에 참여하곤 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4월의 어느 토요일 나는 담배를 샀고 그날밤 첫 담배를 태웠으며 그것이 신호가 돼 다음날 주일 종소리를 들으며 담배를 피워무는 것으로 4년에 걸쳐 내 심신의 굳은 관습이었던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기어이 억제할 수 있었다. 신자들의 흡연이 금지된 시절 나는 스스로의 과거를 통해 나의 기독교를 파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종말론을 깨우쳐준 한편의 책

그러나 회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고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의 파탄감, 세계의 무의미성, 존재의 설움, 삶의 공허감은 더욱 깊어지고 괴로움과 고독감, 절망감은 더욱 심해졌다. 이때 나는 신을 버림으로써 무신론자가 되고 그 무신론의 다음 길은 허무주의며 그 허무주의는 퇴폐주의를 이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이 허무와 퇴폐의 고통스러운 정서 속에서 나는 실존주의를 몸으로 익히고 있었고 나의 모든 감각은 문학 속에서 존재론적 고뇌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카뮈와 사르트르, 헤밍웨이와 말로, 혹은 릴케와 서정주, 황순원과 손창섭, 《아웃사이더》의 콜린 윌슨 등등 내가 읽는 모두는 그때의 내 안으로 속속 스며들어와 나의 부정적 인식을 살찌우고 있었고 내 눈에 다가온 거리가 내게는 실존론적 시각으로 읽혀들어왔다. 아마 내가 술을 잘 마실 수 있었더라면, 혹은 뜨거운 연애를 했더라면 이 절망적 감정을 어느 만큼은 해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더러 하는 산책에서 세상은 내 곁을 시리게 지나쳐갔고 한밤에 잠깨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속으로 골똘히 빠져들기도 했다.

이때 읽은, 아니 서문만 보고 더 이상 보기를 스스로 마다한 책

이 칼 뢰비트의 《역사의 의미》(Meaning in History)였다. 범문사에서 제목만 보고 산 책이었는데, 히브리어 헬라 이후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었다. 그 서술의 체계가 근대에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택한 이 책의 서문에서 나는 '종말론'(eschatology)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고대 그리스 사관은 계절의 순환처럼 역사가 되



나는 같은 과 친구들보다는 시를 쓰는 황동규와 마중기 등과 더 자주 어울렸고 회현동과 명동을 들락거리며 술도 마시고 문인들을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기도 했다. 사진은 대학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황동규 시인.

풀이되는 것으로 보지만 히브리의 그것은 시간은 순환이 아니라 직선으로 지향하며 그 종말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었다. 이 기독교적 '구원의 역사관'에서 열쇠가 되는 '종말론'이란 단어가 이제사 내게 불현듯 다가와 내 눈을 튀우고 내 머릿속을 관통했다. 그것을 발견하던 날 밤, 나의 의식은 문득 무한확대되고 세계는 홀연히 환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 '종말론'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며서 문득 이 개념이야말로 세계와 인간의 삶의 아포리아를 여는 만능열쇠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책의 본론으로 들어감으로써 내 관점으로 받아들인 '종말론'의 개념이 희석되거나 바뀌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역사의 의미》 읽기를 이것으로 멈췄다. 대신 종말론적 사유와 정서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 경험을 통해 나는 세계를 꿰뚫고 그것의 저 끝 뒤편을 본 듯했으며 그 극점의 관통을 통해 세상의 허위와 삶의 가짜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자신감을 얻는 듯했다. 실제로 이후의 나의 삶에서 좌절과 위기를 느낄 때마다 이 종말론적 의지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돼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기독교와 나의 실존주의의 접점이 이 종말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개념의 발견과 내면화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독교적 고뇌와 실존주의적 절망감이 가시기가까지는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했다. 실존주의적 감성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나의 내면에 숨어 있는 가장 깊은 사유의 뿌리가 되고 있을 것이며, 비록 완강한 무신론자가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인간과 문화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이해의 틀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또 종말론의 관점은 이제도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사유와 태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후 생애는 20대 전반의 기독교와 실존주의적 고뇌를 통해서 구축된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성인으로서 이 세계를 대면하는 입사의 절차를 이룬 셈이었다. ●